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중장년층 1인가구의
생활만족에 대한 유형화 연구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 정 순

2020년 8월

제주지역 중장년층 1인가구의 생활만족에 대한 유형화 연구

지도교수 김 상 미

문 정 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문정순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0년 8월

A Typology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Single Person Households in Jeju

Jeong-Soon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Sang-Mi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0. 0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II. 이론적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5
1. 중장년층에 대한 정의	5
2. 1인가구의 대한 정의	6
3. 생활만족도의 개념 및 영향 요인	13
4. 선행연구고찰	15
III. 연구방법	17
1. 연구설계	17
2. 연구절차	17
3. Q표본 구성	18
4. P표본의 구성	20
5. Q분류 과정	23
6. 자료분석	24
IV. 연구결과	25

1. 유형의 형성	25
1) 유형의 구성	25
2) Q표본에 응답한 유형별 표준점수	26
3) 유형별 상관관계	28
4) 유형별 인자가중치	28
2. 유형 분석	30
1) 유형 1	30
2) 유형 2	36
3) 유형 3	42
4) 유형	47
3. 유형분석 결과	54
1) 유형 1 : 자기 만족형	54
2) 유형 2 : 타인 의존형	56
3) 유형 3 : 자기 불만형	58
4) 유형 4 : 타인 방임형	60
4. 각 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	63
V. 결론 및 제언	68
참고문헌	76
영문초록	83

표 목 차

<표 1> 1인 가구 관련 주요 개념	8
<표 2> 제주 성별·연령대별 1인 가구(2000~2018년)	10
<표 3>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 변화(2015 ~2018년)	12
<표 4> 연구 설계 및 절차	18
<표 5> Q표본의 진술문	19
<표 6>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1
<표 7> Q표본 강제 분류 방법 및 점수 배열	24
<표 8> 유형별 아이젠 값(요인고유치) 및 변량	25
<표 9> Q표본에 응답한 각 유형별 표준 점수	26
<표 10>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28
<표 11> 유형별 인자가중치	29
<표 12> 유형1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0
<표 13> 유형1의 Q표본에 응답한 표준점수	31
<표 14> 유형1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33
<표 15> 유형1 중 타 유형들의 평균값과 상대적 독특함을 보이는 진술문	35
<표 16> 유형2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6
<표 17> 유형2의 Q표본에 응답한 표준점수	36
<표 18> 유형2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39
<표 19> 유형2 중 타 유형들의 평균값과 상대적 독특함을 보이는 진술문	41
<표 20> 유형3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2
<표 21> 유형3의 Q표본에 응답한 표준점수	42
<표 22> 유형3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44
<표 23> 유형3 중 타 유형들의 평균값과 상대적 독특함을 보이는 진술문	46
<표 24> 유형4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7
<표 25> 유형4의 Q표본에 응답한 표준점수	48
<표 26> 유형4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50
<표 27> 유형4 중 타 유형들의 평균값과 상대적 독특함을 보이는 진술문	52
<표 28> 유형1의 상위 대표 문항	55

<표 29> 유형1의 하위 대표 문항	56
<표 30> 유형2의 상위 대표 문항	57
<표 31> 유형2의 하위 대표 문항	58
<표 32> 유형3의 상위 대표 문항	59
<표 33> 유형3의 하위 대표 문항	60
<표 34> 유형4의 상위 대표 문항	61
<표 35> 유형4의 하위 대표 문항	62
<표 36> 유형별 요인 특성	62
<표 37> 유형별 공통 진술문	64
<표 38> 유형별 차이 진술문	66
<표 39> 유형 1 ‘자기 만족형’ 특성	69
<표 40> 유형 2 ‘타인 의존형’ 특성	70
<표 41> 유형 3 ‘자기 불만형’ 특성	71
<표 42> 유형 4 ‘타인 방임형’ 특성	73

그림 목차

<그림 1>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2015년, 2018년)	12
<그림 2> Q표본의 분포도	23

제주지역 중장년층 1인가구의 생활만족에 대한 유형화 연구

문정순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김상미

본 연구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 중에서도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생활만족도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 인식을 유형화하는 연구와는 차별되며 직무 스트레스, 자기조절 능력, 사회적지지,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4개의 하위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유형화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개의의 의견, 태도, 가치관 등 주관적 현상을 객관화하기 유용한 Q방법론을 이용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IBM SPSS Statistics 25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제주지역의 중장년층 만 40세 ~ 만 64세 중 통계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혼자 살림하는 1인 가구 39명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중장년층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를 유형화 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형1은 '자기 만족형'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자기조절능력이 뛰어나다. 이

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지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유형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유형2는 ‘타인 의존형’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의식을 하고 의존을 하는 유형이다. 반면 사회적인 관계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생활만족은 낮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유형3은 ‘자기 불만형’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계획 또한 잘 짤 수 있고 주변사람들과의 인정 또한 받고 있으나, 자기 스스로에게는 만족보다는 불만이 가득한 유형이다. 유형 4는 ‘타인 방임형’으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주변사람들과의 소통, 관계 등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1인 가구를 위한 문화, 여가 생활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계에서의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한계점은 조사 대상이 제주지역 중장년층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하여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중장년층, 1인 가구, 생활만족도, Q방법론, 유형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가치관의 변화로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은 와해되고 핵가족화로 이행되는 가족세대의 단순화, 편부모 가족, 독거노인 가족, 1인 가구 등의 비정형적인 가족형태의 출현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는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과 근대화 로 인구변천과 사회변동으로 가구 분화 현상에 따른 높은 가구 수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구분화현상은 핵가족화 및 소규모 가족 화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보면 1990년 총 가구의 9.0%에서 2000년 15.5%, 2005년 20.0%, 2010년 23.9%, 2015년 27.2%, 2018년 29.3%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는 2025년 32.3%, 2030년 33.7%, 2035년 35.2%, 2040년 36.4%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향후 가구 형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1인 가구의 증가는 주택 수요, 공간 분포, 가구 소비패턴, 복지수요 등 많은 부분에서의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강은택·강정구·마강래, 2016), 사회·경제·문화적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국내 뿐 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구·가족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Smithm, 2005; Bennet and Dixon, 2006; Vespaet al, 2013; 김윤영, 2018).

우리나라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변화 등 자발적 요인 보다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의한 비자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기존 관련 연구들은 1인 가

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Subjective Well-Being, SWB)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강은택·강정구·마강래, 2016).

1인 가구 증가 배경에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벗어나 비혼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요인으로는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의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의 증가, 한국의 교육환경과 관련한 분가 가족의 증가,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위해 원가족과 분리되어 대도시에서 독립가구를 형성하는 청년세대의 증가, 빠른 고령사회 증가로 인한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이 있다(변미리 외, 2008; 강소현, 2019). 이렇듯 1인 가구의 증가는 학계에서도 관심분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인 가구 증가 원인이 복합적인 것처럼 1인 가구도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개별화된 4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대~30대 초반 직업을 구할 수 없어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소위 ‘산업예비군 그룹’, 30대 후반~50대까지 가족 해체, 실직, 기러기 현상 등이 복합된 ‘불안한 독신자 그룹’,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1인 가구’, 마지막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독신의 삶을 즐기는 ‘트렌드세터 골드족’등 다양한 1인 가구가 존재한다(여성가족부, 2018).

중장년기의 가족과 친척, 친구관계, 단체가입 등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과 중장년기에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퇴라는 변화는 중장년기의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외, 2003; 최성수 외, 2008; 김현성 외, 2019).

중장년층은 갑작스런 퇴직이나 이혼, 별거로 혼자 살고 있다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 보도(울산방송 ubc 김예은 기자, 2020)가 되면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문제는 새로운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옥분, 2018).

중장년 1인 가구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사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인프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끔 신문지면상을 장식하는 고독사 문제처럼 외로움에 방치된 중장년층 1인가구를 향한 정서적 지원은 물론,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이지원, 2019).

1인 가구의 문제점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1인 가구가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특히 아플 때 혼자인 것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회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생활로

인해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약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타인과의 생각이나 감정 등의 공유가 줄어들어 다인 가구에 비해 생활을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우울증과 자살 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명진 외, 2014)는 것을 보았을 때, 최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겨나는 ‘혼밥(혼자서 밥먹기)’, ‘혼술(혼자서 술마시기)’, ‘혼영(혼자서 영화보기)’ 과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며 자유롭게 혼자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이면에는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의 정서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소현, 2019).

청년층의 만혼화가 지속되면서 중년에 이르기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에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들은 ‘골드족’이라고 정의하며 이들의 화려한 삶을 재조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경제력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고아라 외, 2018). 그러나 복지가 필요한 중년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이혼여성이나 비혼 여성 등 남성보다는 여성에 치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김미숙, 2016). 이러한 현실에서 중년 남성 1인가구의 삶의 불안은 역시 높은 편이지만 벌써부터 자신이 사회적으로 복지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도움을 외면하는 경향이 높아 이들은 더욱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 한국 사회는 중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청년이나 노인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년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듯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유형을 파악하여 그 유형의 욕구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미래의 복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1인 가구 유형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의 중장년층의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를 유형화함으로써 중장년층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유형화 연구를 통하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인 가구는 새로운 가구 유형으로서 지자체 및 정부차원에서의 청년, 노인 대상보다는 중장년층 대상의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급증 하고 있지만 그 중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8). 증가 추세에 따라 제주지역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장년층 대상의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중장년층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중장년층에 대한 정의

일반적으로 중장년기는 유년기, 청년기를 거쳐 인생 전반에 대한 개방적 수용과 자기 확대가 이루어지며, 부모로서의 성숙된 역할 수행을 하는 시기이며, 인생으로 보았을 때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바뀌는 전환점이자 노년기로의 준비단계이다(남지은, 2017). 이러한 중장년층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다르고 연령 구분 또한 명확하지 않다.

중장년층은 사회구성원 가운데 나이가 중년과 장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틀어 의미한다(고려대한국어대사전, 2009). 최근 고령화와 함께 100세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50+세대라고도 한다(경기도 시·군 중장년 일자리사업 연구, 2019).

Erikson(1978)은 중·장년기를 35세~65세 사이로 보았고, Buhler에 의하면 대개 45세~65세 사이로 보고 있으며, 퍼스트 에이지는 40대~70대 중후반의 시기, 이정인, 김계하, 오순학(2003)은 약 40세~60세 사이, Havighurst(1972)는 30세~60세, Levison(1978)은 40세~60세의 시기를 중장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중·장년층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40세~64세 또는 50세~64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중장년층을 만50세 이상~만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한 「2020년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운영지침」에서는 만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자들이 바라보는 중장년 기는 다양한 견해로 설명할 수 있다. Erikson(1978)은 심리사회적 발달을 8단계로 보았고, 그 중 중장년 기는 7단계로 생산성 대 침체성의 갈등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자신의 직업에서도 생산성을 발휘하게 된다고 보았다. Havighurst(1972)는 인생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을 제시하였다. 중장년 기는 개인이 사회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시기이며,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를 느끼는 시기라고 보았다. Levinson(1978)는 인생 주기를 4단계로 구분하고, 생물학적 능력이 다소 감퇴되어가지만 사회적 책임은 더 커지는 시기라고 보았다.

중장년 기는 신체적으로 감퇴, 갱년기 등의 변화와 직업에서의 은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 주기 관점에서 노부모와 자녀의 중간에서 늙고 의존적인 부모 부양과 함께 중년기에 처한 배우자, 독립적 개인으로서 자아 정체감 수립을 해 나가는 자녀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재조정해야 할 과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송명숙, 2002).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장년층의 구분은 학자마다 정책마다 범위가 유동적이고 상이하여 명확한 구분을 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40세~60세까지를 아우르고 있다고 알 수 있다(남지은, 2017).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함에 따라 중장년층의 연령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준 만40세 이상 ~ 만65세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2. 1인 가구에 대한 정의

1인 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다시 말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홀로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통계청, 2005).

1인 가구는 '단독 가구', '독신 가구'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단독 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배화옥, 1993), 가구원이 한 명인 경우(여운경·양세정, 2001) 또한 노인 한 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가구(김행신·이영호, 1998) 등으로 개념화 되었다.

1인 가구는 형성 요인에 따라 자발적 1인 가구, 비자발적 1인 가구로 구분하였고, 혼인을 경험하지 않은 비혼 이거나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닌 이혼·사별 등을 한 법적으로 무배우자인 상태는 비혼 1인 가구로 보았고, 혼인 1인 가구는 주말

부부, 기러기 아빠 등 법적인 배우자가 있지만 사정에 의한 별거중인 사람으로 보았다(이옥분, 2018).

1인가구는 세대에 따른 특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청년기는 대개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3세~14세부터 ~ 22세~23세를 청년기라 부른다. 가정과 학교에서 주된 생활을 하는 10대 청소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애과정인 청년기에 속하게 된다. Lothaller(2010)는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동시에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고 일·경력 요구와 가족·사적 요구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시기로 부모나 가족에 의존하던 때와는 달리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며 독립해야 하는 시기이다(Bronfenbrenner, 1986). Erikson(1982)은 청년기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의 단계에 해당하고 자기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이라 볼 수 있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보고 있다. Havighurst(1952)는 청년기의 중요 과업으로 배우자 선정, 배우자오의 동거생활 능력, 육아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 단계로서 연령은 청년기와 같이 학자마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융(Jung)은 40세에 시작되는 중년기를 인생 전반에서 후반으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Erikson(1978)은 중년기를 30세~65세 사이로 보았으며 이 시기는 생산성 대 침체성이라는 일곱 번째 위기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생산성을 통해 성인은 다음 세대를 인도하며 자녀를 출산하는 것뿐 아니라 직업을 통해 기술을 전수하고 문화를 창조하며 보존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생산성을 경험하지 못하면 침체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노년기는 단지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완성 시켜 나가는 의미 있는 시기라 보고 있으며(장혜경, 1998), 나머지 생애 대한 목표를 갖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의식을 가져야 하며, 성공적인 노화는 일생을 통한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젊은 시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경란 외, 2002).

Erikson(1978)은 성인기의 마지막 단계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며 인생을 수용하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았고, Havighurst(1952)은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배우자 사망에 적응과 본인의 죽음 준비 및 동년배와 친밀한 관계 형성 등으로

제시했다. Garfein과 Herzog(1995)는 노년기의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삶의 만족이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혔다. 또한 장년기 이전에 속한 사람들이 우울이나 심리적 불안정을 더 만크이 보이는 반면 노인들은 그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다(Hilleras et al., 1998).

<표 1> 1인 가구 관련 주요 개념

저자	연도	1인 가구 지칭용어	개념
배화옥	1993	단독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여윤경 외	2001	단독가구	가구원이 한 명인 경우
통계청	2005	1인 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차경옥	2006	1인 가구	성인 1명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것
김혜영	2007	1인 가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배우자 없이 생활하고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
변미리 외	2008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사람
정경희 외	2012	1인 가구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1인 가구 거주자)
이성은 외	2012	1인 가구	비혼 1인가구-현재 법적 또는 사실적으로 무배우자로 주민등록상 단독으로 세대 분리되어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배건이 외	2013	1인 가구	실제 주소 및 거소를 갖는 단독생활자, 현재 법적/사실적으로 무배우자로 주민등록상 단독으로 세대 분리되어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김혜영	2014	1인 가구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혼자 생활하거나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생활하는 가구
이병호	2014	1인 가구	법적 배우자가 없이 홀로 사는 독신 가구
최현수 외	2016	1인 취약가구	(통계표준용어)1인 가구 + (OECD·EU 상대빈곤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
이경아	2017	1인 가구	혼인 여부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혼자 생계를 영위하는 가구 단위
경기도 광명시	2019	1인 가구	단독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
제주특별자치도	2017	1인 가구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

(자료 : 최현수 외, 2016에서 자료 수정 보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2000년 일반가구에 비해 1인 가구 16.6%(26,152가구), 2005년 21.5%(38,511가구), 2010년 24.0%(44,996가구), 2015년 26.5%(58,446가구), 2016년 27.4%(62,841가구), 2017년 28.6%(68,738가구), 2018년 29.4%(73,25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주된 가구유형은 4인 가구(27.1%)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5.6%로 차지하였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기준 제주 읍면동별 1인 가구는 제주시 연동 9.0%(6,577가구)이 가장 많으며, 노형동 7.7%(5,609 가구), 이도2동 6.6%(4,850가구) 순으로 가장 많이 분포 되어 있다. 성별로는 남자 51.3%(37,607 가구), 여자 67.3%(35,643 가구) 여자가 남자보다 16.0%(1,964 가구)가 많다. 연령으로는 19세 이하 0.9%(646가구). 20세~29세 12.3%(8,996 가구), 30세~39세 15.7%(11,525 가구), 40세~49세 19.3%(14,120 가구), 50세~59세 21.0%(15,391 가구), 60세 이상 30.8%(22,572 가구)로 제주지역의 경우 40세~60세 이상까지의 1인 가구가 다른 연령대의 비행 평균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8).

1인 가구 고용률은 2015년 전국 평균 60.6%의 고용률을 보였으나 제주의 경우 69.8%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역시 전국 평균 61.1% 이었으나 제주의 경우 73.2%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지역별 고용 조사, 2018).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2045년이 되면 제주도의 1인 가구 비율은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2019).

이렇듯 제주의 1인 가구 증가비율이 높고 연령대별로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아 질수록 연령대에 맞는 1인가구의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중장년층 1인 가구 대상으로 보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조례」 제 2조(정의)에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로 정의하고 있어 본 정의를 개념으로 1인 가구로 분류하여 보고자 한다.

<표 2> (제주) 성별·연령대별 1인 가구(2000-2018년)

(단위: 가구, %)

		합계	19세 이하	20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2000년	계	26,152	396	3,289	3,758	3,339	2,940	12,426	10,454
		100.0	1.5	12.6	14.4	12.8	11.2	47.5	40.0
	남	8,551	191	1,712	2,185	1,740	1,317	1,404	935
		100.0	2.2	20.0	25.6	20.3	15.4	16.4	10.9
	여	17,601	205	1,577	1,573	1,599	1,623	11,022	9,517
		100.0	1.2	9.0	8.9	9.1	9.2	62.6	54.1
2005년	계	38,511	448	5,290	6,383	5,898	4,588	15,904	13,452
		100.0	1.2	13.7	16.6	15.3	11.9	41.3	34.9
	남	14,747	190	2,719	3,798	3,299	2,246	2,495	1,720
		100.0	1.3	18.4	25.8	22.4	15.2	16.9	11.7
	여	23,764	258	2,571	2,585	2,599	2,342	13,409	11,732
		100.0	1.1	10.8	10.9	10.9	9.9	56.4	49.4
2010년	계	44,996	401	4,693	6,879	7,635	7,095	18,293	15,326
		100.0	0.9	10.4	15.3	17.0	15.8	40.7	34.1
	남	18,794	195	2,444	4,133	4,472	3,686	3,864	2,682
		100.0	1.0	13.0	22.0	23.8	19.6	20.6	14.3
	여	26,202	206	2,249	2,746	3,163	3,409	14,429	12,644
		100.0	0.8	8.6	10.5	12.1	13.0	55.1	48.3
2015년	계	58,446	551	6,742	9,672	11,868	11,773	17,840	13,720
		100.0	0.9	11.5	16.5	20.3	20.1	30.5	23.5
	남	28,946	289	3,556	5,894	7,415	6,574	5,218	3,298
		100.0	1.0	12.3	20.4	25.6	22.7	18.0	11.4
	여	29,500	262	3,186	3,778	4,453	5,199	12,622	10,422
		100.0	0.9	10.8	12.8	15.1	17.6	42.8	35.3

2016년	계	62,841	552	7,065	10,140	12,493	13,069	19,522	14,390
		100.0	0.9	11.2	16.1	19.9	20.8	31.1	22.9
	남	31,538	284	3,792	6,188	7,706	7,320	6,248	3,798
		100.0	0.9	12.0	19.6	24.4	23.2	19.8	12.0
	여	31,303	268	3,273	3,952	4,787	5,749	13,274	10,592
		100.0	0.9	10.5	12.6	15.3	18.4	42.4	33.8
2017년	계	68,738	672	7,899	11,038	13,631	14,398	21,100	15,276
		100.0	1.0	11.5	16.1	19.8	20.9	30.7	22.2
	남	35,221	315	4,222	6,833	8,529	8,228	7,094	4,256
		100.0	0.9	12.0	19.4	24.2	23.4	20.1	12.1
	여	33,517	357	3,677	4,205	5,102	6,170	14,006	11,020
		100.0	1.1	11.0	12.5	15.2	18.4	41.8	32.9
2018년	계	73,250	646	8,996	11,525	14,120	15,391	22,572	16,022
		100.0	0.9	12.3	15.7	19.3	21.0	30.8	21.9
	남	37,607	326	4,721	7,204	8,658	8,867	7,831	4,577
		100.0	0.9	12.6	19.2	23.0	23.6	20.8	12.2
	여	35,643	320	4,275	4,321	5,462	6,524	14,741	11,445
		100.0	0.9	12.0	12.1	15.3	18.3	41.4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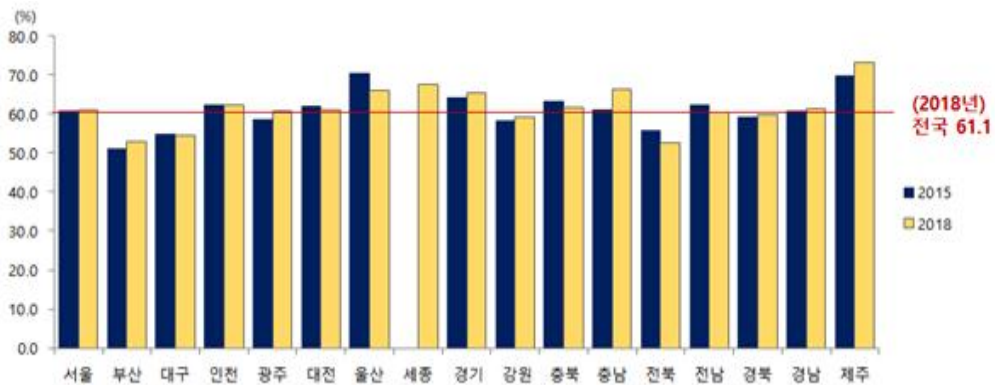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준)

<표 3>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 변화(2015-2018년)

(단위: %, %p)

시도별	2015년(A)		2016년		2017년		2018년(B)		증감(B-A)	
	고용률	1인가구 고용률	고용률	1인가구 고용률	고용률	1인가구 고용률	고용률	1인가구 고용률	고용률	1인가구 고용률
전국	61.2	60.6	61.2	60.5	61.4	61.1	61.2	61.1	0.0	0.5
서울	59.9	60.8	60.5	60.6	60.4	61.4	59.4	60.9	-0.5	0.1
부산	56.6	51.1	56.1	51.0	56.3	52.4	56.5	52.8	-0.1	1.7
대구	59.5	54.8	59.6	51.1	58.0	55.9	59.1	54.3	-0.4	-0.5
인천	61.7	62.3	61.9	61.7	62.6	63.8	63.0	62.4	1.3	0.1
광주	58.6	58.5	58.2	55.6	59.3	60.3	59.7	60.7	1.1	2.2
대전	60.3	62.0	60.1	60.9	58.9	65.7	59.0	61.1	-1.3	-0.9
울산	59.5	70.2	59.9	69.4	59.9	66.5	59.3	66.0	-0.2	-4.2
세종	-	-	-	-	61.2	64.6	62.4	67.5	-	-
경기	62.0	64.2	61.9	65.7	62.7	65.5	62.0	65.4	0.0	1.2
강원	60.0	58.3	60.4	60.1	63.2	58.2	63.0	59.0	3.0	0.7
충북	64.6	63.3	63.1	61.0	64.6	59.7	64.2	61.5	-0.4	-1.8
충남	63.8	60.9	63.5	60.5	64.1	66.1	65.4	66.3	1.6	5.4
전북	60.6	55.8	61.5	57.1	59.5	52.7	59.5	52.5	-1.1	-3.3
전남	63.9	62.1	64.2	61.9	63.6	59.0	63.8	60.3	-0.1	-1.8
경북	63.8	59.1	63.5	59.4	63.4	57.8	63.1	59.9	-0.7	0.8
경남	61.7	60.7	61.3	60.7	61.5	61.1	61.9	61.2	0.2	0.5
제주	70.2	69.8	70.5	68.0	70.2	68.0	68.3	73.2	-1.9	3.4

자료 : 통계청(KOSIS) 지역별 고용조사(2018 기준)



<그림 1>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2015년, 2018년)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8 기준)

3. 생활만족도의 개념 및 영향 요인

인간은 국적이나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주관적인 만족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생활 만족도(life satisfaction)의 개념은 현재의 주변상황과 살아온 삶에 대한 행복감이나 만족감의 주관적 판단 또는 태도를 일컫는다(김학주, 2016).

생활만족도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여러 연령층 집단의 삶의 질 또는 만족도, 자기 효능감, 심리적 안정, 행복감 등의 다양한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삶의 질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평가결과를 보여주는 주관적 심리상태의 측정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김범규·남용현, 2014).

국내 연구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감(홍순혜, 1984)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망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는 긍정적인 정도라고 말하였다(김옥태 외, 1999).

또한 생활만족도란 학자들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의 차이일 뿐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주변상황이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 및 삶에 대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생활만족도라 정의하고자 한다(강소현, 2019).

생활만족도는 Jung(1954)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용어는 1961년 Neugarten, Havighust, Tobin에 의해 처음 개념화되어 생활지표(Life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한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쓰이고 있다(강소현, 2019). 생활만족도의 하위변인으로는 의식주 영역, 인간관계 영역, 신체·정신건강 영역, 일 영역, 경제 영역, 사회·여가활동 영역, 행복감 영역을 포함한다(강소현, 2019).

생활만족도 관련변인으로 직접적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김화진(2015)은 행복지수와 우울에 1인가구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업의 유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직업이 있는 경우 행복지수가 높고 우울의 지수

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김은수, 2007; 오정석, 2013; 김사라 외, 2017)에서는 일관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으로, 중년여성의 자아분화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 하위변인인 인지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모두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한석빈, 2015).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박영신 외, 2008). 김선과 최재희(2013)의 연구에서도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생활만족도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영신 외, 1999).

사회적지지 요인과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사회적 지지가 미혼 및 사별 1인 가구의 삶의 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별거 및 이혼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지지 변인이 삶의 질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박미석 외, 2017).

대부분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살펴본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뿐 만이 아니라 직업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지지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만족도의 유형화한 연구는 충분히 고찰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4.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대한 연구는 전체가구의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 초기에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경제생활 여가 등에 대한 탐색을 하였고(박충선, 2002; 심영, 2002; 윤소영, 2002), 연령 및 세대를 노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노인 독신가구의 특성, 경제 상태와 경제적 불평등, 소비지출(성지미 외, 2001; 송유진, 2007; 이윤정 외, 2004)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급성장 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에 대한 관심을 확대되어 독신자를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연구(이욱영, 2003; 장승훈, 2005)이거나 식생활 소비패턴과 같은 라이프스타일의 연구(강문주, 2011; 이성림 외 2016)로 이어져 나갔다.

대상으로도 초기에는 독거노인이나 농촌노인 단독가구의 주거생활이나 빈곤, 건강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이상권, 2002; 정선숙, 2012; 최요석, 2016)가 많았다. 2010년 넘어서 1인 가구의 증가가 일반화 되면서 연구의 대상도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 20~30대 도심에 사는 거주자에서부터 40~50대 중장년층으로 관심이 넓어졌다(안미연, 2012; 지혜, 2014). 1인 가구의 증가를 가족의 변화로 파악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같은 1인가구라도 형성원인에 있어서 세대별·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구대상도 확장된 것이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주목한 연구도 늘고 있다. 여성 1인 가구의 증가가 교육 및 취업 등의 목적으로 독립한 세대 혹은 결혼관의 변화로 인하만혼 내지 미혼 증가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변미리 외, 2008)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에 대한 어려움은 남성독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이 경험(차경욱, 200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적 배제가 되는 과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주거, 건강, 사회적 안전망 등의 관계에서의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김혜정, 2014).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여성에 비해 적은 분포를 보이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면서도 사회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적었고(차경욱, 2006; 장은정, 2015) 특히

중장년층 남성은 ‘고독사’사건으로 많이 등장하며 가족지원이 열악해 가장 취약 대상으로 같은 연령일지라도 성별에 따라 삶의 패턴에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였다(장은정, 2015).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를 알아보는 연구는 있으나 그 대상이 독거노인 대상으로 생활만족 수준 및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변미리 외, 2008)가 있었고, 청년층 대상으로(정순희·임은정, 2014; 최효미·김지현, 2018) 선행 연구가 있었다. 중장년층(김현성 외, 2019)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만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중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다인가구와의 비교(이병호, 2014) 또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경희 외, 2012; 김윤영, 2018; 황혜원, 2018; 강소현, 2019)들이 많이 있다. 이렇듯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미비하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생활만족에 대한 유형화 하는 연구는 충분히 고찰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를 밝혀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장년층 1인 가구 생활만족에 따른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명명화하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이다. Q방법론은 주관성 연구를 위해 심리학은 물론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접근법으로 연구 방법인 동시에 분석방법이다(김홍규, 2008). 일련의 문항에 대하여 일정 방식으로 반응하는 개인의 원형에 대한 정보 제시를 함으로써 태도, 선호, 사고, 행동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주관적 반응의 유의성에 따라 개인 군집을 발견해 내는 방법이다(김현수 외, 2000). 이에 본 연구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생활만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진술 문항은 선행연구인 강소현(2019)의 ‘결혼경험 유무에 따른 비혼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주제와 관련이 모호하거나 무관한 내용 검토 후 최종 33개의 진술문을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Q진술문의 수집 및 진술문 표본 선정, P 표본 선정, Q 분류, 자료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표 4> 연구 설계 및 절차

1단계	Q 진술문 수집 및 진술문 표본 선정 : 관련문헌, 연구문헌의 고찰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주제와 관련이 모호하거나 무관한 내용을 검토 후 진술문 33개 수집
2단계	P 표본 선정 : 제주지역 40세~64세 1인 가구 39명 선정
3단계	Q 분류 (2020. 4. 30. ~ 2020. 5. 27. 약 4주간) : 33개의 Q표본 카드를 Q분류 판에 강제 할당하여 분류, 양극단에 분류한 진술문은 개방형 질문 실시
4단계	자료 분석 : QUANL PC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 상관분석 및 요인분석, Q 유형분석 및 유형별 특성 파악 : IBM SPSS Statistics 25 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

3. Q표본 구성

Q집단의 질문지, 관련문헌, 연구문헌의 고찰 내용을 참조하여 Q표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진술문을 바탕으로 연구주제와 관련이 모호하거나 무관한 내용을 검토한 후 33개를 최종 Q표본 진술문으로 확정하였다. 진술문은 <표5>과 같다.

<표 5> Q표본의 진술문

구분	진술문항
직무 스트레스	1. 나의(일)업무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3. 나는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한다.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자기 조절능력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사회적 지지	1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5. 주변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17. 주변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18. 주변 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19.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20.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 해준다. 21.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22. 주변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23. 주변 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2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28. 나의 요즘 정신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32. 나는 요즘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만족한다.
-------------------------------	--

4. P표본의 구성

본 연구에서 모집단 선정은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는 제주지역 40세~64세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혼자 살림하는 1인 가구 39명을 대상으로 P표본을 구성하였다.

조사 및 인터뷰에 앞서 본 연구에 참여 동의를 하는 동의서를 받았으며, 조사 기간은 2020. 4. 30.~ 2020. 5. 27. 까지 약 4주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중장년층 1인가구의 유형화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하여 Q방법론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표본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6>과 같다.

P표본의 성별 분포는 남성 41%(16명), 여성 59.0%(23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중장년층 1인가구의 연령 분포는 40세~49세 64.1%(25명), 50세~59세 25.6%(10명), 60세~64세 10.3%(4명)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 유형으로는 미혼 64.1%(25명), 이혼 28.2%(11명), 사별 5.1%(2명), 별거 2.6%(1명)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 살고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76.9%(30명), 3년~4년 미만 7.7%(3명), 1년

미만 5.1%(2명), 1년~2년 미만 5.1%(2명), 4년~5년 미만 5.1%(2명)로 5년 이상 혼자 살고 있는 모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유형으로는 자가 46.2%(18명), 연세¹⁾ 15.4(6명), 전세 15.4(6명), 월세 12.8%(5명), 전세+연세 7.7%(3명), 무상 주택 2.6%(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특성상 집세 유형으로 연세에 거주하는 유형 또한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유형으로는 생산/기술직 5.1%(2명), 판매직 2.6%(1명), 서비스직 30.8%(12명), 사업/자영업 15.4%(6명), 사무직 15.4%(6명), 행정 관리직 5.1%(2명), 예술/전문직 2.6%(1명), 단순 노무직 5.1%(2명), 기타 17.9%(7명) 순으로 서비스직 30.8%(12명)이 제일 많았으며, 기타 유형으로는 무직 또는 교육 공무원 등이 있었다.

월 평균 소득은 100~200만원미만 25.6%(10명), 200~300만원미만 33.3%(13명), 300만원~400만원미만 33.3%(13명), 400~500만원미만 2.6%(1명), 500~600만원 미만 2.6%(1명), 600만원이상 2.6%(1명)으로 200만원~400만원미만 사이 각 33.3%(13명)의 월 평균 소득이 가장 많았다.

<표 6> P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6	41.0
	여	23	59.0
	합계	39	100.0
연령별	40세~49세	25	64.1
	50세~59세	10	25.6
	60세~64세	4	10.3
	합계	39	100.0

1) 연세 : 세입자가 1년 또는 10개월 등 일정기간의 집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혼인별	미혼	25	64.1
	이혼	11	28.2
	사별	2	5.1
	별거	1	2.6
	합계	39	100.0
혼자 생활 한 기간	1년 미만	2	5.1
	1년~2년 미만	2	5.1
	3년~4년 미만	3	7.7
	4년~5년 미만	2	5.1
	5년 이상	30	76.9
합계	39	100.0	
거주 유형	자가	18	46.2
	전세+연세	3	7.7
	월세	5	12.8
	연세	6	15.4
	무상 주택	1	2.6
	전세	6	15.4
	기타	0	0.0
	합계	39	100.0
직업	생산/기술직	2	5.1
	판매직	1	2.6
	서비스직	12	30.8
	사업/자영업	6	15.4
	사무직	6	15.4
	행정 관리직	2	5.1
	예술/전문직	1	2.6
	단순 노무직	2	5.1
	기타	7	17.9

	합계	39	100.0
월 평균 소득	100~200만원 미만	10	25.6
	200~300만원 미만	13	33.3
	300~400만원 미만	13	33.3
	400~500만원 미만	1	2.6
	500~600만원 미만	1	2.6
	600만원 이상	1	2.6
	합계	39	100.0

5. Q분류 과정

Q분류를 함에 있어서 9점 척도(-4점~+4점까지) 진술문의 카드를 나열하는 강제 배분방식(FOrced Distribut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제 배분방식을 활용하여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Q표본을 제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Q표본의 분포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가장 부정		중립					가장 긍정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4	-3	-2	-1	0	1	2	3	4
(2)								(2)
	(3)						(3)	
		(4)				(4)		
			(5)	(5)	(5)			

<그림 2> Q표본의 분포도

6.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Q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을 P표본인 연구대상자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9점 척도 상에 강제 분포 하도록 하였다. 가장 부정적인 문항부터 -4(1점), -3(2점), -2(3점), -1(4점), 0(5점), 1(6점), 2(7점), 3(8점), 4(9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코딩된 파일의 자료 분석은 PC-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Q-요인분석은 주요인분석방법(Principle Compinen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Eigem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에서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가 낮아 요인마다의 고유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요인수를 선정한 후 각 유형을 명명화 하였다.

Q표본 강제 분류 방법 및 점수 배열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Q표본 강제 분류 방법 및 점수 배열

	← 강한 부정		중립			강한 긍정→			
점수 카드	-4	-3	-2	-1	0	1	2	3	4
점수	1	2	3	4	5	6	7	8	9

IV. 연구결과

1. 유형의 형성

1) 유형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QUANL PC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장년층 1인가구의 유형화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한 주관성 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분석한 결과 산출된 요인들의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이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 및 상관관계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결과 4개 유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유형에 대한 유형별 Eigen value와 설명력은 <표 8>에 제시하였다. 4개 유형은 전체 변량의 54.34%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유형1이 30.06%, 유형2가 16.40%, 유형3이 4.38%, 유형4가 3.50%로 이는 중장년층 1인가구 유형화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변량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누적 변량은 54.34%로 나타나고 있으며, 누적변량이 50%를 넘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Q방법론의 목적은 설명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 변량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김홍규, 2008).

<표 8> 유형 별 아이젠 값(요인고유치) 및 변량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아이젠값	11.7252	6.3950	1.7068	1.3657
설명변량(%)	.3006	.1640	.0438	.0350
누적변량(%)	.3006	.4646	.5084	.5434

2) Q표본에 응답한 유형별 표준점수

Q표본에 응답한 유형별 Z-Score는 <표 9>과 같다. 절대값이 클수록 진술문의 강한 긍정(+)과 강한 부정(-)을 의미한다.

<표 9> Q표본에 응답한 각 유형별 표준 점수

Q 진술문		Z-Score			
		1	2	3	4
직무 스트 레스	1. 나의(일)업무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1.5	-6	.1	.7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1.7	-2	.2	.2
	3. 나는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한다.	-1.2	.7	.7	.1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	-1.9	-1.2	.3	.3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1.7	-6	-3	.8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1.6	-8	.3	.4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1.6	-6	-6	.4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1.2	-7	-7	.7
자기 조절 능력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	.9	1.1	-1.1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0	1.6	1.7	.2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9	-5	1.7	-7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8	-3	.2	-1.3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8	1.1	.1	.0

사회적 지지	1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5	1.0	.3	.1
	15. 주변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9	1.6	.4	.5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9	.9	.9	-.0
	17. 주변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8	1.0	1.6	.5
	18. 주변 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만 한 사람들이다.	.5	1.1	1.2	.5
	19.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9	.9	1.1	.6
	20.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 해준다.	.2	.4	.1	-1.0
	21.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1	.3	.3	-1.5
	22. 주변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2	1.3	-.0	-1.5
	23. 주변 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3	.5	.0	-1.2
2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2	.4	-.4	-1.7	
전반 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	.2	.8	-1.3	1.5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9	.2	-1.7	-.9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1.5	-.7	-.6	-.6
	28. 나의 요즘 정신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9	-1.3	.9	1.1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7	-.7	-1.3	1.5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4	-2.0	-2.0	1.4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3	-1.0	-1.9	-1.1
	32. 나는 요즘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7	-1.9	-1.3	-1.2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만족한다.	-.3	-1.7	-1.0	2.2

3) 유형별 상관관계

중장년층 1인 가구 유형화에 따른 생활 만족도 상관관계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형 1은 유형2와 .387, 유형3과 .172, 유형4와 -.194로 나타났고, 유형 2와 3은 .547, 유형4와 -.234, 유형3은 유형4와 -.086으로 나타났다. 유형1과 유형 2, 유형2와 유형3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유형2는 유형1과, 유형 3 두 유형 사이에서 생활만족도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형4는 유형1, 유형2, 유형3과는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표 10>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1	1.000			
유형2	.387	1.000		
유형3	.172	.547	1.000	
유형4	-.194	-.234	-.086	1.000

4) 유형별 인자가중치

유형별 요인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11>과 같다. 연구 참여자 총 39명에 의해 4가지 유형으로 구성 되었다. 유형의 빈도를 살펴보면 유형1은 18명, 유형2은 8명, 유형3은 10명, 유형4는 3명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 내에 인자가중치가 높은 P표본 일수록 속해 있는 유형 속에서 그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참여자임을 알 수 있다.

<표 11> 유형별 인자가중치

유형 1(N=18)		유형 2(N=8)		유형 3(N=10)		유형 4(N=3)	
P표본 번호	인자 가중치	P표본 번호	인자 가중치	P표본 번호	인자 가중치	P표본 번호	인자 가중치
2	1.8929	1	.5952	9	.2440	8	.1740
5	1.0562	3	1.3499	13	.8633	27	.1519
6	1.3594	4	1.1908	15	.7562	35	.5670
7	1.3541	18	.7909	16	.3666		
10	.8713	25	.7905	17	1.4259		
11	.4694	26	1.1034	20	.5825		
12	.8019	28	1.1328	24	2.8197		
14	.6901	31	.7432	32	.3058		
19	.4629			36	.4118		
21	.6933			36	.4075		
22	1.6664						
23	1.3309						
29	1.5573						
30	.8863						
33	1.1250						
37	.9935						
38	1.4193						
39	1.3611						

2. 유형분석

유형 분석은 각 유형별 긍정과 부정의 진술문 등 Z-Score(표준점수)가 ± 1.0 이상 또는 이하의 항목을 중심으로 Z-Score가 높은 진술문과 낮은 진술문을 통하여 특성을 살펴 볼 것이고, 각 유형 내 나머지 유형들의 평균표준점수와의 상대적으로 독특한 차이를 보이는 유형을 분석하였다.

1) 유형 1

P표본 중에서 유형 1은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2>과 같고, Q표본에 응답한 유형1의 표준점수는 다음<표13>와 같다.

<표 12> 유형1의 인구사회학적 특징(N=18)

(단위 : 명)

성별	연령대	혼인별	혼자 산 기간	거주유형	직업(직)	월 소득
남자 4	40세~49세	14 미혼 11	1년미만 1	전세 3	사무 2	200미만 5
여자 14	50세~59세	1 이혼 5	2년미만 1	연세 4	생산/기술 1	300미만 4
	60세~64세	3 사별 2	4년미만 1	자가 9	서비스 4	400미만 6
			5년이상 15	전+사 1	사+자영업 5	500미만 1
				월세 1	기타 6	600이상 2

<표 13> Q표본에 응답한 유형1의 표준 점수

(긍정 ■ 부정 ■)

Q 진술문		Z-Score
직무 스트 레스	1. 나의(일)업무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1.5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1.7
	3. 나는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한다.	-1.2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 되게 만든다.	-1.9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1.7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1.6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1.6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1.2
자기 조절 능력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0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9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8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8
사회적 지지	1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5
	15. 주변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 준다.	.9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9
	17. 주변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8
	18. 주변 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5
	19.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9
	20.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 해준다.	.2
21.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 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1	

	22. 주변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2
	23. 주변 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3
	2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2
전반 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	.2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9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1.5
	28. 나의 요즘 정신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9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7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4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3
	32. 나는 요즘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7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만족한다.	-.3

유형1에 속한 P표본들이 분류한 진술문 중 표준점수가 ± 1.00 이상만을 정리한 진술문은 <표 14>과 같다.

유형1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은 9번($Z=.99$), 10번($Z=.97$), 11번($Z=.95$), 19번($Z=.95$) 진술문이었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은 2번($Z=$), 5번, 4번 진술문이었다.

유형1은 무슨 일이든 옳고 그름을 잘 판단 할 수 있으며, 계획 또한 잘 짤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주변과의 관계 또한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가족관계에서 있어서 또한 만족할 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업무에 있어서 또한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들지 않으며, 업무량 또한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좌절감 또한 느끼는 경우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1유형은 자기조절 능력이

매우 강하고 사회적지지 부분에서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표현 할 수 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여가활동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유형1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진술문		표준 점수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99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을 일을 판단할 수 있다.	.97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95
19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95
15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94
28	나의 요즘 정신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91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89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85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82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81
17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80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74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66
14	주변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52
18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49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40
23	주변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31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30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한다.	.20
24	주변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20
22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9
20	주변사람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을 해준다.	.18
21	주변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13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0.26
3	나는 긴장상태에서 일을 한다.	-1.16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증압감을 느낀다.	-1.25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1.46
1	나의 일(업무)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1.50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1.59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1.59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1.71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1.74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	-1.94

유형1에서 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 상이한 차이를 보이며 독특함을 보이는 진술문은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유형1이 타 유형의 평균적인 분류 수준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진술문은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을 한다(DIFF=2.150),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DIFF=1.671),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DIFF=1.613),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DIFF=1.279)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1이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유독 부정하는 진술문은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DIFF=-1.719),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DIFF=-1.692),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DIFF=-1.596)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유형1이 타 유형과의 상이한 특징을 보면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을 하고, 가족과의 관계, 사회생활에 만족을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직장 내 스트레스에서 또한 전혀 상관없고, 업무 능력에서 또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표 15> 유형1 중 타 유형들의 평균값과 상대적 독특함을 보이는 진술문

진술문	인자 가중치	AVERAGE	DIFF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을 한다.	.659	-1.491	2.150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886	-.784	1.671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298	-1.315	1.613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821	-.458	1.279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1.462	-.639	-.823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1.246	-.214	-1.032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1.587	-.270	-1.317
1. 나의 일(업무)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1.498	.072	-1.569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1.588	.008	-1.596
3. 나는 긴장상태에서 일을 한다.	-1.158	.511	-1.669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1.737	-.045	-1.692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	-1.939	-.219	-1.719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1.712	.052	-1.764

2) 유형 2

P표본 중에서 유형 2은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6>과 같고, Q표본에 응답한 유형2의 표준점수는 다음 <표17>과 같다.

<표 16> 유형2의 인구사회학적 특징(N=8)

(단위 : 명)

성별	연령대	혼인별	혼자 산 기간	거주유형	직업(직)	월 소득							
남자	5	40세~49세	6	미혼	7	2년미만	1	전세	1	사무	2	200미만	1
여자	3	50세~59세	2	이혼	1	4년미만	1	연세	1	생산/기술	1	300미만	3
						5년이상	6	자가	4	서비스	4	400미만	4
						월세	2	사+자영업	1				

<표 17> Q표본에 응답한 유형2의 표준점수

(긍정 ■ 부정 ■)

Q 진술문		Z-Score
직무 스트 레스	1. 나의(일)업무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6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2
	3. 나는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한다.	.7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 되게 만든다.	-1.2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6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8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6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7

자기 조절 능력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9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6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5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3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1.1
사회적 지지	1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0
	15. 주변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1.6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9
	17. 주변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1.0
	18. 주변 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1.1
	19.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9
	20.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 해준다.	.4
	21.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3
	22. 주변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3
	23. 주변 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5
전반 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2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4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	.8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2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7
	28. 나의 요즘 정신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1.3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7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2.0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1.0
32. 나는 요즘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1.9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만족한다.	-1.7

유형2에 속한 P표본들이 분류한 진술문 중 표준점수가 ± 1.00 이상만을 정리한 진술문은 <표 18>와 같다.

유형1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은 15번($Z=1.56$), 10번($Z=1.55$), 22번($Z=1.28$), 13번($Z=1.14$) 진술문이었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은 30번($Z=-1.99$), 32번($Z=-1.91$), 33번($Z=-1.65$), 28번($Z=-1.28$) 진술문이었다.

유형2은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을 일을 판단 할 수 있으며,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해 나갈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주며,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될 때까지 해보는 유형이고, 주변사람들을 마음 놓고 의지 할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은 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다.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만족하지 못하고, 요즘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하지 않고,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 하지 못하고 정신건강 상태 또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2유형은 사회적 지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18> 유형2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진술문		표준 점수
15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1.56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을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55
22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28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1.14
18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1.06
14	주변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03
17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99
19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95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93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86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한다.	.82
3	나는 긴장상태에서 일을 한다.	.71
23	주변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47
24	주변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38
20	주변사람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을 해준다.	.38
21	주변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26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22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19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27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46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60
1	나의 일(업무)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61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63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66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67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72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0.76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0.99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	-1.17
28	나의 요즘 정신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1.28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1.65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1.91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1.99

유형2에서 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 상이한 차이를 보이며 독특함을 보이는 진술문은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유형2가 타 유형의 평균적인 분류 수준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진술문은 ‘22.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DIFF=1.746), 24. 주변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DIFF=1.028), 15.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DIFF=.940),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DIFF=.83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2가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유독 부정하는 진술문은 28. 나의 요즘 정신건강 상태에 만족한다(DIFF=-2.268),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DIFF=-1.973),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DIFF=-1.27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유형2가 타 유형과의 상이한 특징을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사회적지지 측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은 전혀 없다고 나오고 있다.

<표 19> 유형2 중 타 유형들의 평균값과 상대적 독특함을 보이는 진술문

진술문	인자 가중치	AVERAGE	DIFF
22.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282	-.463	1.746
24. 주변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379	-.649	1.028
15.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1.556	.617	.940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1.137	.307	.830
3. 나는 긴장상태에서 일을 한다.	.706	-.111	.817
23. 주변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472	-.279	.751
14. 주변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028	.321	.707
20. 주변사람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 해준다.	.378	-.223	.601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1.910	-.635	-1.275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1.652	.321	-1.973
28. 나의 요즘 정신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1.279	.989	-2.268

3) 유형 3

P표본 중에서 유형 3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20>과 같고, Q표본에 응답한 유형3의 표준점수는 다음 <표 21>와 같다.

<표 20> 유형3의 인구사회학적 특징(N=10)

(단위 : 명)

성별	연령대	혼인별	혼자 산 기간	거주유형	직업(직)	월 소득							
남자	5	40세~49세	4 미혼	6	1년미만	1	전세	1	사무	1	200미만	3	
여자	5	50세~59세	5 이혼	3	4년미만	1	연세	1	서비스	3	300미만	5	
													1
	1	월세	1	단순노무	2								
						2	전+사	2	예술/전문	1			
1	무상주택	1	행정관리	1									
					1	기타	1						

<표 21> Q표본에 응답한 유형 3의 표준 점수

(긍정 ■ 부정 ■)

Q 진술문		Z-Score
직무 스트레스	1. 나의(일)업무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1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2
	3. 나는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한다.	.7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 되게 만든다.	.3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3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3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6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7

자기 조절 능력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1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7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1.7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2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1
사회적 지지	1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3
	15. 주변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4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9
	17. 주변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1.6
	18. 주변 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1.2
	19.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1.1
	20.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 해준다.	.1
	21.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3
	22. 주변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0
	23. 주변 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0
2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4	
전반 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	-1.3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1.7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6
	28. 나의 요즘 정신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9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1.3

30. 현재 나의 한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2.0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1.9
32. 나는 요즘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1.3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만족한다.	-1.0

유형3에 속한 P표본들이 분류한 진술문 중 표준점수가 ± 1.00 이상만을 정리한 진술문은 <표 22>와 같다.

유형3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은 10번($Z=1.69$), 11번($Z=1.66$), 17번($Z=1.59$), 18번($Z=1.21$) 진술문이었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은 30번($Z=-2.03$), 31번($Z=-1.90$), 26번($Z=-1.70$) 진술문이었다.

유형3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을 일을 판단할 수 있으며, 계획을 잘 짤 수 있고, 주변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고,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고,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현재 한달 수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사회생활·가족 관계 또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22> 유형3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1.00 이상)

진술문	표준점수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을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69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1.66
17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1.59
18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1.21
19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1.11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6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95
28 나의 요즘 정신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92

3	나는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한다.	.68
15	주변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40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34
1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33
21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30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	.25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19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17
20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 해준다.	.13
1	나의(일)업무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12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08
23	주변 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01
22	주변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03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28
2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42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59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60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70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만족한다.	-.96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	-1.30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1.32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1.33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1.70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1.90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2.03

유형3에서 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 상이한 차이를 보이며 독특함을 보이는 진술문은 살펴보면 <표 23>와 같다.

유형3이 타 유형의 평균적인 분류 수준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진술문은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DIFF=1.722), 17.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DIFF=.828),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DIFF=.823),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DIFF=.79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3이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유독 부정하는 진술문은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DIFF=-2.156),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DIFF=-1.970),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한다(DIFF=-1.842),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DIFF=-1.77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유형3이 타 유형과의 상이한 특징을 보면 계획을 잘 짤 수 있으며, 주변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 할 수 있다고 나온다. 반면 현재 한달 수입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 또한 만족하지 못한다. 사회생활 · 가족관계에서 또한 만족하지 못한다.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주지는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23> 유형3 중 타 유형들의 평균값과 상대적 독특함을 보이는 진술문

진술문	인자 가중치	AVERAGE	DIFF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1.659	-.063	1.722
17.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1.589	.761	.828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56	.233	.823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694	.898	.796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186	-.581	.767
21. 주변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301	-.369	.670
18.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다.	1.206	.671	.535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950	.576	.373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 하다.	-.586	-.931	.344
19.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1.114	.839	.274
15.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395	1.004	-.609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1.903	-.581	-1.322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1.699	.078	-1.777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1.315	.527	-1.842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2.030	-.060	-1.970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	-1.304	.852	-2.156

4) 유형 4

P표본 중에서 유형4은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24>과 같고, Q표본에 응답한 유형4의 표준 점수는 다음 <표 25>과 같다.

<표 24> 유형4의 인구사회학적 특징(N=3)

성별	연령대	혼인별	혼자 산 기간	거주유형	직업(직)	월 소득
여자 3	40세~49세	1 미혼 1	5년이상 3	전세 1	사무 1	200미만 1
	50세~59세	2 이혼 2		자가 1	서비스 1	300미만 1
				월세 1	행정관리 1	400미만 1

<표 25> Q표본에 응답한 유형 4의 표준 점수

(긍정 ■ 부정 ■)

Q 진술문		Z-Score
직무 스트 레스	1. 나의(일)업무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7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2
	3. 나는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한다.	.1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 되게 만든다.	.3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8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4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4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7
자기 조절 능력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1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2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0.7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1.3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0
사회적 지지	1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
	15. 주변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5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0
	17. 주변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5
	18. 주변 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5

	19.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6
	20.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 해준다.	-1.0
	21.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1.5
	22. 주변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5
	23. 주변 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1.2
	2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1.7
전반 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	1.5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9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6
	28. 나의 요즘 정신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1.1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1.5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1.4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1.1
	32. 나는 요즘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1.2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만족한다.	2.2

유형4에 속한 P표본들이 분류한 진술문 중 표준점수가 ± 1.00 이상만을 정리한 진술문은 <표 26>와 같다.

유형4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은 33번($Z=2.19$), 25번($Z=1.53$), 29번($Z=1.51$), 30번($Z=1.42$) 진술문이었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은 24번($Z=-1.73$), 22번($Z=-1.55$), 21번($Z=-1.50$), 12번($Z=-1.28$) 진술문이었다.

유형4는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만족을 하고, 살고 있는 곳, 하고 있는 일 또한 만족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주변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지 못하고,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하지 못하고, 주변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4유형은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서는 강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회적지지 측면에서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26> 유형4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진술문		표준점수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만족한다.	2.19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	1.53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1.51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1.42
28	나의 요즘 정신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1.14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75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72
1	나의(일)업무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71
19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63
15	주변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51
17	주변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50
18	주변 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46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44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42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	.26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7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16
3	나는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한다.	.15
14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2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03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0.05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0.61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0.67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0.87
20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 해준다.	-0.97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1.05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15
23	주변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하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1.15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1.24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1.28
21	주변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1.50
22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55
24	주변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1.73

유형4에서 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 상이한 차이를 보이며 독특함을 보이는 진술문은 살펴보면 <표 27>와 같다.

유형4가 타 유형의 평균적인 분류 수준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진술문은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DIFF=3.144),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DIFF=2.624),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DIFF=1.929)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4가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유독 부정하는 진술문은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DIFF=-2.117), 22.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DIFF=-2.025), 24. 주변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DIFF=-1.78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유형4가 타 유형과의 상이한 특징을 보면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을 하고,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생활만족 분류 수준에서 타 유형에 비해 강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알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주지 못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는 전혀 생활 만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27> 유형4 중 타 유형들의 평균값과 상대적 독특함을 보이는 진술문

진술문	인자 가중치	AVERAGE	DIFF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2.186	-.958	3.144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1.415	-1.209	2.624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1.513	-.416	1.929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754	-.875	1.629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	1.529	-.092	1.621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721	-.869	1.590
1. 나의 일(업무)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707	-.663	1.370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424	-.940	1.364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	.262	-.953	1.215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441	-.669	1.110
28. 나의 요즘 정신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1.136	.184	.952

19.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626	1.002	-.375
18.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다.	.461	.919	-.458
14. 주변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18	.625	-.507
17.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495	1.126	-.631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034	.675	-.641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047	.909	-.956
20. 주변사람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해준다.	-.970	.227	-1.197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65	1.407	-1.242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674	.715	-1.388
23. 주변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1.152	.263	-1.415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1.280	.242	-1.522
21. 주변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1.495	.230	-1.725
24. 주변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1.728	.053	-1.781
22.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546	.479	-2.025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149	.968	-2.117

3. 유형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 1인 가구 중장년층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유형화한 조사 결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 되었다. 1유형 ‘자기 만족형’, 2유형 ‘타인 의존형’, 3유형 ‘자기 불만형’, 4유형 ‘타인 방임형’으로 명명화 하였다. Q방법론에서 유형별 명명화는 연구자의 주관적 사고로 조작적 정의를 한다. 4가지 유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유형 : 자기 만족형

유형1에서는 인식 유형 중 가장 많은 수인 총 18명의 대상자가 분류되었으며, 설명량은 30.06%로 가장 많았다.

유형1 대상자가 가장 동의한다고 응답한 진술 문항 10개는 다음 <표 28>와 같다. 상위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슨 일이든 정확한 처리를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Q1),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을 일을 판단할 수 있다(Q10),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Q11),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Q4), 주변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Q15)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형1의 긍정 문항 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며, 모든 주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긍정적이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28> 유형1의 상위 대표 문항

Q 진술문	Z-Score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99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97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95
19.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95
15.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94
28. 나의 요즘 정신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91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89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85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82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81

유형1에서 대상자가 가장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진술 문항 10개는 다음 <표 29>와 같다. 하위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들고, 업무 수행 시 초조함과 불안함 마음을 갖게 되고,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Q1, Q4, Q7), 내가 해야 하는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Q2), 업무로 인하여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Q2),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Q6), 전반적인 나의 현재 생활을 고려할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Q27)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형1의 부정 문항 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나의 업무는 나에게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들지도 않으며 업무량 또한 큰 부담이 없다. 업무로 인한 좌절감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다.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가득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30> 유형1의 하위 대표 문항

Q 진술문	Z-Score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	-1.94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1.74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1.71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1.59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1.59
1. 나의(일)업무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1.50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1.46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1.25
3. 나는 긴장상태에서 일을 한다.	-1.46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만족한다.	-.26

2) 2유형 : 타인 의존형

유형2에서는 총 8명의 대상자가 분류되었으며, 설명량은 16.40%로 수치를 보였
다.

유형2 대상자가 가장 동의 한다고 응답한 진술 문항 10개는 다음 <표 30>와
같다. 상위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
재임을 인정해준다(Q15),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 할
수 있다(Q10),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
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Q22),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Q13), 주변 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Q18)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형2의 긍정 문항 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으나,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많
이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30> 유형2의 상위 대표 문항

Q 진술문	Z-Score
15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1.56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55
22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28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1.14
18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1.06
14 주변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03
17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99
19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95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93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86

유형2 대상자가 가장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진술 문항 10개는 다음 <표 31>와 같다. 하위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Q30),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과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Q32, Q33), 나의 요즘 정신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Q28),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Q31) 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형2의 부정 문항 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일 또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저녁시간이나 주말, 여가활동을 할 줄도 모른다. 반면, 정신건강 · 사회생활 또한 만족하지 못하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

<표 31> 유형2의 하위 대표 문항

Q 진술문	Z-Score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1.99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1.91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1.65
28 나의 요즘 정신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1.28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	-1.17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99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76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72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67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66

3) 3유형 : 자기 불만형

유형3에서는 총 10명의 대상자가 분류되었으며, 설명량은 4.38%의 수치를 보였다.

유형3의 대상자가 가장 동의 한다고 응답한 진술 문항 10개는 다음 <표 32>와 같다. 상위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Q10),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Q11),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Q17),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Q18),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Q19)인식하고 있었다.

유형3의 긍정 문항 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나는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반면 자기조절 능력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판단 능력, 계획을 잘 짤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사회적지지 또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2> 유형3의 상위 대표 문항

Q 진술문	Z-Score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69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1.66
17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1.59
18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1.21
19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1.11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6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95
28 나의 요즘 정신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92
3 나는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한다.	.68
15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40

유형3 대상자가 가장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진술 문항 10개는 다음 <표 33>와 같다. 하위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Q30),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Q31),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Q26),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과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Q32, Q33),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Q25, Q29) 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형3의 부정 문항 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현재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을 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게 없으나 월 소득에 대해 만족을 하지 않고, 저녁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니, 사회생활 또한 만족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33> 유형3의 하위 대표 문항

Q 진술문	Z-Score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2.03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1.90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1.70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1.33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1.32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	-1.30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만족한다.	-.96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70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60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59

4) 4유형 : 타인 방입형

유형4에서는 총 3명의 대상자가 분류되었으며, 설명량은 3.50%로 수치를 보였
다.

유형4 대상자가 가장 동의 한다고 응답한 진술 문항 10개는 다음 <표 34>와
같다. 상위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만족한다
(Q33),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Q25),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Q29),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Q30), 나의 요즘 정신 건
강상태에 만족한다(Q28)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형4의 긍정 문항 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가 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감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34> 유형4의 상위 대표 문항

Q 진술문	Z-Score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2.19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한다.	1.53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1.51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1.42
28 나의 요즘 정신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1.14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75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72
1 나의(일) 업무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71
19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63
15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51

유형4의 대상자가 가장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진술 문항 10개는 다음 <표 35>와 같다. 하위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변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Q24),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Q22), 주변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Q21),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Q1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Q32)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형2의 부정 문항 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타인이 나 자신을 볼 때 관심을 주지 않다고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

<표 35> 유형4의 하위 대표 문항

Q 진술문	Z-Score
24 주변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1.73
22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55
21 주변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1.50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1.28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1.24
23 주변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하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1.15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15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1.05
20 주변사람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해준다.	-0.97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0.87

4개 유형별 요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유형별 요인 특성

유형	특성
1유형 자기만족형	자기 조절 능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 전반적인 생활만족은 긍정적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족으로 인식
2유형 타인의존형	주변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강함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
3유형 자기불만형	자기조절 능력은 긍정적으로 인식 자신과 관련한 생활만족도는 부정적으로 인식
4유형 타인방임형	자신에 대한 모든 면에서는 긍정적 인식 주변인과 함께하려는 부분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

4. 각 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장년층 1인 가구 생활만족 인식 유형 분석 결과 4가지의 상이한 유형으로 확인 되었다. 이처럼 상이한 인식 유형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일부 진술문에 대해 공통으로 응답한 문항이 있었고 확연히 다르게 인식하는 진술문이 존재하였다. 유형 간 공통으로 나타난 진술문은 연구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향후 중장년층 1인 가구 생활만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 반영에 필요성이 높다고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차이가 나타난 진술문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인해 쟁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인식 유형 간 비교적 공통적인 의견을 보인 진술문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Q10),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Q13),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Q15),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Q19),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Q16),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Q17),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Q18), 주변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Q14)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조절 능력 또한 잘 되어 있으며 주변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긍정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통으로 나타난 부정 진술문은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한다(Q27)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7> 유형별 공통 진술문

Q 진술문		유형			
		1	2	3	4
자기 조절 능력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0	1.6	1.7	.2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8	1.1	.1	.0
사회적 지지	15.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9	1.6	.4	.5
	19.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9	.9	1.1	.6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9	.9	.9	.0
	17.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8	1.0	1.6	.5
	18.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5	1.1	1.2	.5
	14. 주변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5	1.0	.3	.1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1.5	-.7	-.6	-.6

네 가지 유형별 차이 진술문은 다음 <표38>에 제시되어 있다.

유형1과 유형2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1은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Q32),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Q30)에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형 2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유형2는 긴장상태에서 일한다(Q3), 나의 일(업무)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Q2)에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유형1은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유형1과 유형3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들과의 관계 만족(Q26), 한 달 수입에 만족(Q30)에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형3은 반대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유형3은 나의 일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Q4), 나의

일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Q6)에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형1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형1과 유형4의 차이를 살펴보면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Q9),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있다(Q12)의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형4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반면 유형4는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다(Q5),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Q33)에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형1은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유형2와 유형3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Q25), 가족들과의 관계 만족(Q26)에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유형3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유형3은 나의 요즘 정신 건강 상태 만족(Q28),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Q11)에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형2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형2과 유형4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주변사람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Q22), 주변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Q24)에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형4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유형4는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Q33),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Q30)에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형2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형3과 유형4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유형3은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으며(Q11),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Q9)에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형4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유형4는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Q30),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Q33)에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형3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8> 유형별 차이 진술문

진술문	유형1	유형2	유형1-2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659	-1.910	2.569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398	-1.994	2.392
3. 나는 긴장상태에서 일을 한다.	-1.158	.706	-1.864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1.712	-.194	-1.518

진술문	유형1	유형3	유형1-3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886	-1.699	2.586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398	-2.030	2.428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	-1.939	.251	-2.190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1.588	.337	-1.925

진술문	유형1	유형4	유형1-4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988	-1.149	2.136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821	-1.280	2.101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1.737	.754	-2.491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259	2.186	-2.445

진술문	유형2	유형3	유형2-3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을 한다.	.823	-1.304	2.127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219	-1.699	1.918
28. 나의 요즘 정신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1.279	.919	-2.198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463	1.659	-2.122

진술문	유형2	유형4	유형2-4
22.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282	-1.546	2.828
24. 주변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379	-1.728	2.107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1.994	1.415	-3.410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1.652	2.186	-3.838

진술문	유형3	유형4	유형3-4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1.659	-.674	2.333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56	-1.149	2.205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2.030	1.415	-3.446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964	2.186	-3.150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1인 가구는 36.4%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인구총조사, 2018).

본 연구는 기존의 중장년층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인식을 유형화하는 연구와는 차별되는 부분으로 직무스트레스, 자기조절능력, 사회적지지,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4개의 하위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개인의 의견, 태도, 가치 등 주관적 현상을 객관화하기 유용한 Q방법론을 이용하였으며 제주지역 중장년층 1인 가구 40세~64세 39명을 P표본으로 하여 중장년층 1인가구의 생활만족 인식에 Q표본을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9적 척도 상에 Q분류를 실시하였으며, QUANL-PC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결과 중장년층 1인 가구 생활만족도 인식으로 4가지 유형을 확인하였다.

유형1은 ‘자기 만족형’으로 여자가 많이 속해 있고(14명), 연령대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14명), 미혼으로(11명) 5년 이상 혼자 살고 있는 인구(15명)사회학적 특성을 볼 수 있었다.

제1유형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자기조절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지능력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유형으로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1유형의 자기조절 능력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경감시켜준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유형 ‘자기 만족형’은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제1유형은 스스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부분에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표 39> 참조).

<표 39> 유형1 ‘자기만족형’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단위:명) n=18													
성별	연령대	혼인별	혼자 산 기간	거주유형	직업(직)	월 소득							
남자	4	40세~49세	14	미혼	11	1년미만	1	전세	3	사무	2	200미만	5
여자	14	50세~59세	1	이혼	5	2년미만	1	연세	4	생산/기술	1	300미만	4
		60세~64세	3	사별	2	4년미만	1	자가	9	서비스	4	400미만	6
					5년이상	15	전+사	1	사+자영업	5	500미만	1	
								월세	1	기타	6	600이상	2

긍정진술문항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19.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15.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28. 나의 요즘 정신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부정진술문항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2.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1. 나의(일) 업무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3. 나는 긴장상태에서 일을 한다.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만족한다.

유형2는 ‘타인 의존형’으로 여자 보다는 남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5명),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었다(6명). 혼인별로는 미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고(7명),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분포(4명)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 유형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의식하고 의존을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주변인과의 관계가 아닌 나 스스로에 있어서는 일과가 끝나고 난 후 저녁시간이나 여가 활동 등 즐기지를 못하고, 정신건강 상태 또한 만족하지 못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유형은 현재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월수입도 만족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반면 직무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표 40> 참조).

<표 40> 유형2 ‘타인 의존형’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단위:명) n=8													
성별	연령대	혼인별	혼자 산 기간	거주유형	직업(직)	월 소득							
남자	5	40세~49세	6	미혼	7	2년미만	1	전세	1	사무	2	200미만	1
여자	3	50세~59세	2	이혼	1	4년미만	1	연세	1	생산/기술	1	300미만	3
								월세	2	사+자영업	1		

긍정진술문항

15.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22.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3.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18.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14. 주변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7.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19.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부정진술문항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28. 나의 요즘 정신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4. 나의 일(업무)은 나를 부자연스럽고 경직되게 만든다.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유형3은 ‘자기 불만형’으로 명명화 하였다. 이 유형은 10명이 분포되어 있으며,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왔고, 50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직업의 유형 또한 타 유형에 비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 유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자기조절 능력이 비교적 잘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타인과 함께 할 때 친밀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유형이다.

반면, 이 유형은 현재 월수입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 주거, 가족과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표 41> 참조)

<표 41> 유형3 ‘자기 불만형’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단위:명) n=10													
성별	연령대	혼인별	혼자	산	기간	거주유형	직업(직)	월	소득				
남자	5	40세~49세	4	미혼	6	1년미만	1	전세	1	사무	1	200미만	3
여자	5	50세~59세	5	이혼	3	4년미만	1	연세	1	서비스	3	300미만	5
		60세~64세	1	별거	1	5년이상	8	자가	4	판매직	1	400미만	2
								월세	1	단순노무	2		
							전+사	2	예술/전문	1			
							무상주택	1	행정관리	1			
										기타	1		

긍정진술문항

-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 1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 17. 주변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 18. 주변사람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 19.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16. 주변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 28. 나의 요즘 정신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 3. 나는 긴장상태에서 일을 한다.
- 15.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 준다.

부정진술문항

-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한다.
-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만족한다.
-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 7. 나는 나의 일(업무)을 수행할 때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 27.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

유형 4는 '타인 방임형'으로 명명화 하였다. 이 유형은 4가지 유형 중 가장 적은 인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성별의 분포 또한 모두 여자이고(3명), 5년 이상 혼자 살고 있다(3명).

제4 유형은 1, 2, 3 유형과는 다르게 여가 활동, 주거, 소득, 직업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다.

반면 이 유형은 주변사람들과의 소통, 사회생활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표 42> 참조).

<표 43> 유형4 ‘타인방임형’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단위:명) n=3													
성별	연령대	혼인별	혼자 산 기간	거주유형	직업(직)	월 소득							
여자	3	40세~49세	1	미혼	1	5년 이상	3	전세	1	사무	1	200미만	1
		50세~59세	2	이혼	2			자가	1	서비스	1	300미만	1
								월세	1	행정관리	1	400미만	1

긍정진술문항

- 33. 요즘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 25.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한다.
- 2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 30. 현재 나의 한 달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 28. 나의 요즘 정신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 5. 내가 해야 할 업무량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 8. 나는 나의 일(업무)로 인하여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 1. 나의(일) 업무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 19. 주변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 15. 주변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부정진술문항

- 24. 주변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 22. 주변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 21. 주변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 12.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 32. 나는 요즘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 23. 주변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하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31. 현재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 20. 주변사람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해준다.
- 26.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중장년층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유형화를 하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장년층의 1인 가구를 위한 문화, 여가 생활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4개 유형 중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부정 진술문 중 중장년층 1인가구는 여가 활동에 대한 생활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서는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가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 수립이 되어있다.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는 미래의 복지정책 수립에 한 계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정책은 치료적 접근이 아니라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1인 가구의 수요자 욕구를 파악하여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이 수립 된다면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둘째,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형 4에서 보면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중장년층에서 겪게 되는 삶의 불안정성과 고립감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중심의 사회적 관계망 및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장년층의 경우 요즘 혼자 지내다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중장년층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역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찾아가는 서비스 또는 중장년 1인가구가 찾아오는 서비스 등 양방향으로 지원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계에서는 중장년층 1인가구의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중장년층 1인가구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

서 타 지역의 중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중장년층 1인가구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 대상이 제주지역 중장년층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 연령별, 혼인 여부 등 다양한 영역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때 중장년층 1인가구의 욕구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가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주. 2011. “1인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수납요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소현. 2019. “결혼경험 유무에 따른 비혼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은택·강정구·마장래. 2016. “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미혼 1인 가구와 기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3-23.
- 경기도. 2018. 3. 20. 조례 제5859호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2018. 3. 20. 조례 제5859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광명시. 2019. 6. 25. 조례 제2494호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경기도일자리재단. 2019. “경기도 시·군 중장년 일자리사업 연구”. 연구보고서.
- 고아라·정규형·신보경. 2018.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 연구: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59, 55-79.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08. 08. “4인 가구 중심의 정책 초점, 1인 가구도 고려해야- 경제여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비자발적 1인가구’대책 마련 시급 -”.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pnc11/220100246800>.
- 김경민. 2020. 1. 17. “상반기 내 1인가구 위한 맞춤형 정책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1171549294100>.
- 김미숙. 2016. “중소도시 중년 비혼 여성의 생활생계-청주시의 경우”. 『한국인구학회』. 제39(4), 103-152.
- 김범규·남용현. 2014. “장애인의 취업상태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가구균등화 소득 3분위를 wnda으로.”. 『장애와 고용』. 24(3), 67-98.
- 김사라·김유숙. 2017.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

-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 25(4), 815-837.
- 김선 · 최재희. 2013. “생활무용참여 노인의 자기효능감, 심리적 행복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 무용과학회지』 . 30(1), 175-191.
- 김예은. 2020. 5. 15. “젊은 고독사 증가.. 복지사각지대 '중장년층'”. UBC 울산방송. <https://web.ubc.co.kr/wp/archives/77989>.
- 김옥태 · 정용승 · 채재성. 1999. “생활체육참가자의 스포츠 참여동기가 여가 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 38(3), 87-95.
- 김윤영. 2018. “1인가구 특성과 사회복지정책: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 34: 1-30.
- 김은수. 2007. “어린이집 교사의 삶의 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및 대처방법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학주. 2016. “경제적 요인이 한부모가구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건강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 43(2). 191-214.
- 김행신 · 이영호. 1998.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 14(8), 59-67.
- 김현수 · 원유미. 2000. 『Q방법론』 . 서울: 교육과학사.
- 김현성 · 이기영 · 김강민 · 이교창 · 안준형 · 황재건. 2019.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및 여가생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여가학연구』 .17. 73-94.
- 김혜영. 2007. “1인 가구의 비혼 사유와 가족의식”. 『한국사회학회』 .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_____. 2008.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 47(2). 7-37.
- _____. 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 15(2), 255-292.
- 김혜정. 2014. “여성 단독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홍규. 2008. 『Q방법론』 .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화진. 2015. “1인 가구의 행복지수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지은. 2017. “중장년층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주택선호도에 관한연구 : 부산광역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란·이영숙. 2002.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및 구성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2(0), 42-43.
- 박미석·전지원. 2017. “비혼 1인 가구의 생활불안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4), 25-42.
- 박영신·김의철. 2008..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 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14(4), 71-101.
- 박영신·김의철·김영희·민병기. 1999. “사회문제:초등학생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5(1), 57-76.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충선. 2002.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6). 163-171.
- 배건이·정극원. 2013. “1인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배화옥. 1993. “우리나라의 단독가구실태에 대한 소고”. 『한국인구학회지』 16(2): 125-139.
- 변미리. 2008.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 변미리·신상영·조권중·박민진.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성지미·이윤정. 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1-130.
- 소윤서. 2017. “세대별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명숙. 2002. “중·장년기 여성의 특성과 노후대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유진. 2007.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1인 가구의 특성”. 『한국지역생활과학회지』. 18(1). 147-160.
- 심영. 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208.
- 안미연. 2012. “거주지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제안 :도심거주 20~30대 1인 1가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8. “인구특성별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 연구”.
- 여운경·양세정. 2001.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12(4), 65-81.
- 오정석. 2013. “경찰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경찰복지연구』. 1(1), 87-107.
- 울산방송 UBC 김예은 기자. 2020. 05. 14. “젊은 고독사’증가.. ‘복지 사각지대’ 중장년층”. https://youtu.be/zvS_aPOFIF4.
- 윤소영. 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혼 및 기혼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9-217.
- 이덕근. 2008. “리더십이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진·최유정·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 이병호. 2014. “중장년층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다인 가구와의 비교”. 『보건사회연구』. 34(3): 348-373.
- 이상권. 2002.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에 따른 생활 만족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림·이승주. 2016. “1인가구의 식생활 형태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식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9(3). 115-133.
- 이옥분. 2018. “1인가구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영. 2003. “주거공간의 인텔리전트화에 따른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독신자

- 를 위한 가구디자인 제안”.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정·김순미. 2004. “남녀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소비지출의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2(12). 93-106.
- 이지원 기자. 2019. 10. 07. “[솔로소사이어티외로운 중·장년층 1인가구.. 이들 위한 정책은 여전히 전무(全無)”. DAILY POP.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41336>
- 장승훈. 2005. “독신자를 위한 지능형 로봇청소기 디자인 제안에 대한 연구:20/30대 Single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정. 2015, “중년남성 1인가구주의 사회자본 형성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문화』. 27(3). 67-100.
- 정경희·남상호·정은지·이지혜·이윤경·김정석·김혜영·진미정. 2012. “가족 구조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선숙. 2012. “독거노인과 배우자 동거노인의 건강행태와 건강수준 비교”.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순희·임은정. 2014.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4호, 1-9.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제주연구원. 2018.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고독사 방지대책”. 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2020. 4. 13. 조례 제2505호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2020. “2020년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운영지침”.
- 중장년층. 2009. 「고려대한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
- 지혜. 2014. “30,40대 미혼여성의 생활실태와 결혼의향 비교:1인가구와 가족동거 가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경욱. 2006. “남성 1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53-269.
- 최성수·이가람·이성민. 2008. “사회적 연결망과 은퇴경험이 한국 중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28(2). 291-307.
- 최요석. 2016. “노인단독가구의 빈곤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

- 위논문.
- 최현수 · 오미애 · 강은나 · 고제이 · 전진아 · 김혜승 · 길현종 · 박현용 · 천미경 · 김솔휘. 2016.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효미 · 김지현. 2018. “청년 1인가구 현황 및 청년층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7-21.
- 통계청. 2005. 통계표준용어및지표.
- _____. 2000. “인구총조사”.
- _____. 2005. “인구총조사”.
- _____. 2010. “인구총조사”.
- _____. 2015~2018. “인구총조사”.
- _____. 2017. “2017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 _____. 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시도편 2017년~2047년”.
- _____. 2018. “지역별 고용조사”.
- 한경혜 · 김주현 · 김경민. 2003.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회』. 23(2). 155-170.
- 한석빈. 2015. “중년여성의 자아분화수준이 가족스트레스와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2019. “제주지역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변화” 보도자료.
- 홍주우. 1999.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nnett, J. and Dixon,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Joseph Rowntree Foundation.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 Dennis, K. E. 1986. “Q Methodology: Relevance and application to nursing research”. 『Advanced in Nursing Science』. 8(3). 6-17.
- Erikson, E. H. 1978. Adulthood. New York : Norton.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ew York: Norton. 22(6). 23-742.
- Garfein, A. and Herzog, A. R. 1995. Robust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50(2). S77-S87.
- Harvighurst. R. 1972. 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 McKay Co. Caro et al. 1993.
- Hilleras, P.K., Jörn, A.F., Herlitz, A., and Winblad, B. 1998. Negative and positive affect among the very old: a survey on a sample age 90 years or older. *Research on Aging*, 20(5), 593-610.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Bollingen Ser No. XX).
- Levinson, D. J., Darrow, C. N., Klien, E. B., Levinson, M. H. and Mckeeb., Vrawton.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Knopf.
- Lothaller, H. 2010. On the way to life-domains balance: Success factors and obstacles. In: Tremmel J. (eds)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Springer, Berlin, Heidelberg.
- Smith, A., Wasoff, F. and Jamieson, L. 2005. CRFR Briefing 20: Solo living across the adult lifecourse, Edinburgh: Centre for Research on Families 47 and Relationships.
- Vespa, J., Lewis, J. M. and Kreider, R. M. 2013. "America's Families and Living Arrangement: 2012, United State Census Bureau.

<Abstract>

A Typology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Single Person Households in Jeju

Moon, Jeong So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 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by categorizing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in Jeju among various objects of single households increasing rapidly, and seek the direction of support at the welfare level.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tudies that categorize the life satisfaction perception of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this study mainly analyzed and categorized four sub-variables such as job stress, self-regulation ability,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with overall life.

As a research method, we used Q methodology which is useful for objectifying subjective phenomena such as individual opinions, attitudes, and values, and analyze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5 statistical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mposed of 39 single-person households defin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mong those middle-aged 40 ~ 64 in Jeju.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esult of categorizing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single person households in Jeju showed four types. Type 1 is a 'self-satisfaction type' who has self-control capability in any situation. This type has high cognitive

ability in themselves and being aware of positive supporting by the others. Type 2 is 'others dependence type'. It is a type of being aware of and depend on relationships a lot with people around them. This type recognize social relationship positively but they have low life satisfaction Type 3 is 'self complaint type'. People in this type can judge right and wrong, make a good plan, and are also recognized by the people around them, but they are more dissatisfied than satisfied with themselves. Type 4 is a 'others neglect type,' which recognizes that satisfaction with overall life is very high, while it is a type that negatively recognizes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s with people around th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to easily access culture and leisure life for single-person household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lan for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to participate in social networks.

Third, studies of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in academia will have to be actively conducted.

The limit of this study is restricting subjects in middle-aged single-person only in Jeju. A follow-up study is considered necessary by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establish policies to increas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within the community, not alone, for rapidly changing single-person households.

**Key words : middle-aged class, single-person household,
life satisfaction, Q methodology, typology**